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①

三界混起 同歸一心
삼계혼귀 동귀일심
前佛後佛 以心傳心
전불후불 이심전심
不立文字
불입문자

"삼계(三界)가 어지럽게 일어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앞서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이 모두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 것이지 글자에 의존하지 않았느니라."

問曰 若不立文字 以何爲心
문왈 약불입문자 이하위심

어떤 이가 묻기를 "만약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마음을 표현합니까." 하였다.

答曰 汝問吾
답왈 여문오
卽是汝心 吾答汝

로 너의 마음이다. 끝없는 옛날부터 활동하고 살아온 모든 시간과 장소들이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함은 바로 그와 같아서이다.

除此心外 終無別佛可得
제차심외 종무별불가득
離此心外 覓菩提涅槃
이차심외 멱보리열반
無有是處 自性眞實
무유시처 자성진실
非因非果 法卽是心義
비인비과 법즉시심의
自心 是菩提 自心是涅槃
자심 시보리 자심시열반
若言心外 有佛及菩提可得
약언심외 유불급보리가득
無有是處 佛及菩提
무유시처 불급보리
皆在何處 譬如有人
개재하처 비여유인
以手捉 虛空得否
이수착 허공득부

마음 떠나서 부처 찾을 수 없으니
자기마음이 바로 보리요 열반이다

즉시여심 오문여
卽是吾心 吾若無心
즉시오심 오약무심
因何解答汝 汝若無心
인하해답여 여약무심
因何解問吾 問吾卽是
인하해문오 문오즉시
汝心 從無始曠大劫以來
여심 종무시광대겁이래
乃至施爲運動 一切時中
내지시위운동 일체시중
一切處所 皆是汝本心
일체처소 개시여본심
皆是汝本佛 卽心是佛
개시여본불 즉심시불
亦復如是
역부여시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그 자체가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대가 마음이 없다면 어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그 자체가 바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마음을 떠나 보리와 열반을 구한다면 옳지 못하다.

자성(自性)은 진실하므로 인과(因果)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법 그 자체가 마음이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이 바로 보리요 열반인 것이다.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고 보리를 얻는다 한다면 옳지 않다. 도대체 부처와 보리가 어디에 있는가?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혈맥론(血脈論)과 관심론(觀心論)

〈혈맥론〉과 〈관심론〉은 달마(達磨 : ?-528)스님의 어록이다. 인도의 승려로 중국에 건너와 대승불교를 일으킨 중국 선종의 시조이다. 이 〈혈맥론〉과 〈관심론〉은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인 〈마음〉에 관해서 문답형식에 의해 전개하고 있다. 다시말해 교리나 문지에 의하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직관(直觀)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파하신 것이다.

불자(佛子)라면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반드시 읽어야 할 귀중한 보서(寶書)이다.

큰 스님과의 대화

집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정보화의 발달은 극도의 개인주의를 불러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단절시켜 인간 소외감을 가중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 IMF경제한파로 인해 우리 사회는 최근 가정의 해체와 분열 현상이 가속화돼가고 있다는 좋지 않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일까. 최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등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들을 초청해 가진 신년하례회 겸 간담회 자리에서 종교지도자들은 박장관에서 '가정붕괴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정무스님
이천 영월암 주지

가정은 사회구성의 최소단위이자 모든 이들의 안식처이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이 가정붕괴 대책을 요구할 만큼 요즘 우리네 가정은 위기를 맞고 있다.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속에서 부부문제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여타 사회문제가 파생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설부모은중경판이 봉안돼 있는 용주사 주지를 수차례 역임하면서 누구보다도 효와 가정,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정무스님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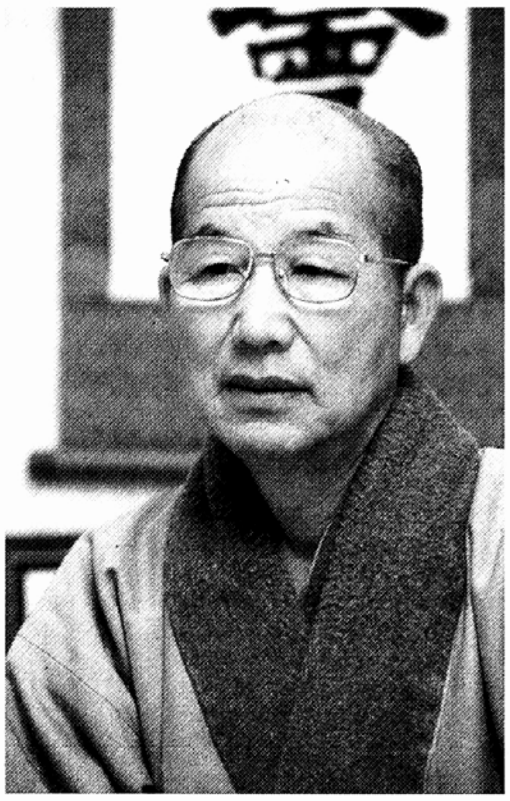
"부모답고 자식다우면 가정화목"

— 컴퓨터 등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간은 집에 혼자 있어도 의식(衣食)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단절돼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지나 않을지, 원만한 인간관계가 막혀 불화와 갈등이 높아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 누구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네가 있어 성립되고 너는 내가 있어 성립된다는 연기법의 실상을 꿰뚫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옆을 살피질 않고 살피려고 노력도 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독단,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지요. 사회가 그러한 경향으로 간다고 방심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원인없는 결과는 없는 법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고독하다고, 소외감을 유난히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곰곰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결국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가정의 기본 구성원은 어머니 아버지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낮에 집에 있는 주부는 능력없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밖에 있는 시간이 많지요. 사는 것은 풍족해졌고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은 많은 반면 자녀들에게 제대로 존경을 못받고 있고, 가족구성원들의 밀착력도 점차 희박해져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사는 일이 바빠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됩니다. 자기를 바로 보세요. 자기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부모 모시고 자녀 거느리고 3대의 가정윤리가 서야하는데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는 데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고쳐가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바로 보면 문제를 알게되고 원인을 파악하면 대책은 나오게 마련이지요.



- 1931년 전북 옥구 生
- 57년 전북대 농과대 수의학과 졸
- 58년 은적사에서 전강선사를 은사로 사미계
- 62년 삼척 영은사에서 대교과 수료
- 65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선사를 계사로 비구계
- 63년 김제 부흥사에서 전강선사를 조실로 5안거 성만
- 68년 영주포교당 주지
- 71~83년 수원 용주사 주지
- 84년 신륵사 주지
- 77년 조계종 종정 표창, 82년 법무부장관 감사장 등 수상
- 현재 이천 영월암에 주석

— 사람들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요사이 사는 것이 지난 60~70년대에 비해 엄청나게 좋아졌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 졌는데도 정신적으로는 공허감이나 부족을 느끼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인상을 찌푸리고 항상 불만족한 얼굴들을 많이 봅니다.

▲ 내 경험으로는 50년전보다 생활수준이 백배는 좋아졌습니다. 물질은 몇십배로 향상이 되어 그만큼 편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반대로 불행해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있기까지 자기존재가 어떻게 섰느냐. 무슨 까닭으로 자기가 존재하는가. 어디서 왔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다섯가지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 은혜, 국가은혜, 동포은혜, 스승의 은혜, 그리고 자연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은혜는 열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은중경에 자세히 나오지요. 또 국가의 은혜는 역사와 문화라고 보면 됩니다. 한 민족이 됐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혼자는 못 삽니다. 서로서로 주고받고 도와주어야 하지요. 스승중의 만세의 스승이 누구냐. 단연코 대자대비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또 온 인류는 한시라도 자연의 혜택을 떠나서 살 수가 없지요. 이 다섯가지중에 하나만 빠져도 사람은 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다섯가지 은혜를 철저히 안다면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또 자연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는법 '나'와 '너' 조화이뤄야 행복도 기쁨도 가능"

스럽게 봉사하고픈 생각도 나지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는 즐겁습니다. 자유보다 좋은 것이 복종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종 안할 수가 없지요.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슨 통계를 보니까 미국 일본 등 잘사는 나라 국민들보다 못사는 나라 국민들이 생활에서 더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더군요. 행복하려면 '일체유심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세요. 자기앞에 불행이나 어려움이 닥칠때 보통 사람들은 쩔쩔 매고 운명을 원망해요. 조상탓 남탓을 하고 불행해 하지만 불자들은 '보왕삼매론'의 "세상살이에 곤란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라는 구절을 떠올리고 역경을 거울로 삼아 장애속에서 보리를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늘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 요새는 1등만이 전부인 것처럼 사회에서도 부추기고 경쟁이 치열해 스트레스가 큽니다. 1등만이 대접받는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오되고 절망을 느끼는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는 양보라든가 이타행이라든가 하는 말이 설득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양보하고 지는 것이 얼마마한 미덕이고 이익이 오는지 세상사람들은 생각안합니다. 어느 곳에 형하고 동생이 살았는데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형이 살림주관을 하니까 20평 아파트 밖에 못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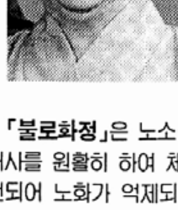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강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한방병원 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 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한방병원 전경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실버타운 분양안내

구분	금액	비고
2인 1실	각 20,000,000원	전세
1인 1실	30,000,000원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